

청소년 참신한 아이디어 정책 반영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정기간담회... 황인홍 군수, 적극 검토·반영키로

황인홍 무주군수가 무주 관내 청소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반영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2일 오후 무주청소년수련관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하반기 정기간담회를 갖고 청소년 관련 다양한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쏟았다.

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안한 정책은 2개로 청소년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청소년 전용 스테디 공간 구축이다. 청소년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휴대폰 앱을 이용해 도서관 자리 유무를 비롯한 청소년수련관, 형설지공 도서관, 무주 공공도서관 예약시스템을 갖춰 관

내 학생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청소년 전용 스테디 공간 구축은 청소년들이 주말과 시험기간에 학습을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필요하다면서 경제적 부담이 따르지 않는 학습공간을 갖춰 줄 것으로 정책으로 제안했다.

이에 황인홍 무주군수는 "청소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미래 행복하고 살기좋은 무주를 담보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오늘 제안한 정책들을 적극 검토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지난 5월 관내 중·고등

학교 학생 15명을 위원으로 위촉, 활동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이날 참석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은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을 비롯해 학교폭력 예방, 직업체험 기회 확대, 청소년 여행지원 정책 마련, 학습 공간 확충 등에 대해 진지한 의견을 나눴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무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완성하기 위한 민선 7기 공약이다.

한편,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상·하반기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원들이 제안한 정책을 갖고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성희 대표, 신지식농업인 선정

대량사육 시스템 '곰뱅이유충선별기' 개발 등 농가소득 창출 기여

장수군은 천천면에서 8년간 식용 곰뱅이 사육을 하고 있는 정성희(48·백만돌이)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의 신지식농업인'에 선정됐다.

22일 장수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선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지식농업인을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시·군이 추천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전문가로 구성된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장수군 천천면에서 8년간 식용 곰뱅이 사육을 하고 있는 정성희(48·백만돌이)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의 신지식농업인'에 선정됐다.

전국의 수많은 농업인 중 올해 전국에서 단 7명(전북 1명) 밖에 선정되지 못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그만큼 신지식 농업인의 자부심이 크다.

이번 신지식농업인에 선정된 정성희 대표는 2012년부터 식용곤충 곰뱅이 사육을 시작해 식용곤충 곰뱅이 대량사육 시스템 '곰뱅이유충선별기'를 개발해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력 증대를 이뤘다.

또 식용곤충 곰뱅이 대량사육 시스템 '곰뱅이유충선별기'를 전국 200여 농촌농가에 보급해 타 농가에 도움을 주고, 생산성 증대로 농가소득 창출에 이바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지식으로 선정된 정 대표는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곤충유통사업과 2021년 곤충사료제조 가공시설

설립으로 곤충자원의 고품질화·균일화·규격화를 통해 동일한 원물생산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됐다"며 "행정 지원과 함께 장수 관내 곤충농가들의 체면과 함께 장수 관내 곤충농가들의 체계적인 조직화를 이루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미래식량사업의 일환으로 유용곤충 사육 시설지원, 곤충홍보관 운영, 곤충산업화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청렴인 대상 수상

진안군 청렴도 평가 전북 군부 1위·청렴문화 확산 조성 기여

전춘성 진안군수가 청렴인 대상 수상했다.

전 군수는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진안군과 사단법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회와의 부패방지 업무협약식

에서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을 받았다.

청렴인 대상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깨끗한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직자 등에게 주는 상으로 UN

부패방지위원회 소속 국민권익위원회 소관단체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이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청렴인 대상 시상식은 매년 UN 부패방지의 날을 기념해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연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진안군청에서 약식으로 전담식을 가졌다.

전 군수는 그동안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해 힘써왔으며, 공직자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 공직자 스스로 청렴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렴 이행에 대한 끊임없는 모니터링으로 내부적 정화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었다.

이처럼 노력해온 결과, 진안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군 평균인 7.79점을 훨씬 웃도는 8.57점을 받아 전북지역 군부 1위와 함께 전국 군부 상위 30% 우수 기관으로 평가됐다.

전춘성 군수는 "청렴은 저 자신은 물론이고 진안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본덕목이며 공직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책무이다"며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는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진안군과 사단법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회와의 부패방지 업무협약식에서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을 받았다.

전춘성 진안군수, 대안학교 이랑학교 방문

전춘성 진안군수는 22일 관내 대안학교인 이랑학교(교장 정용갑)를 방문하여 교사 및 학교 관계자 20여명과 함께 지역사회와 대안학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2009년 3월 개교한 이랑학교는 학년별 12명 정원으로 현재 68명의 전교학생 중 44명이 진안군으로 전입하여 지역 착근형 우수인재를 육성하면서 지역사회에 경제적·교육적·문화적 큰 효과를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8년 부귀면 원세동마을에서 분리하여 이랑교육마을을 만들어, 2019년 '그린빌리지사업', 2020년 '참살기좋은마을꾸미기사업' (우수마을 선정)을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는 '우뚝마을꾸미기 사업'에 참여하여 주민 스스로 특색있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데 전 주민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제12기 반딧불 농업대학 졸업식

무주군은 22일 농업기술센터 농민의 집 농민마당에서 제12기 반딧불 농업대학 졸업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자를 각 과별 수상자와 대표 등 50명으로 최소화하고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는 사과과 윤현식 씨(무주읍)가 반딧불 농업대학 발전과 제12기 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으며 제12기 무주 반딧불 농업대학 학생장인 포도와 안상기 씨(안성면)와 농산물마케팅과 김영란 씨(설천면)는 반딧불농업대학장이 주는 공로상을 받았다.

이외 포도와 김태은 씨(무주읍) 외 9명이 학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무주 반딧불농업대학 황인홍 학장(무주군수)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환경과 여건이었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일념, 새로운 목표를 향한 도전, 무주농업과 농촌발전을 바라는

여러분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며 "오늘의 여러분과 이 자리를 만든 열정으로 전강가득 소득농업 실현에 매진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올해 농산물 공동수집·판매 사업에 매진하며 농 특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판로를 확대해왔던 것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농업경쟁력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졸업생들은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코로나까지 겹쳐 과정을 마치기가 정말로 어려웠다"며 "졸업장을 받아 기쁘고 뒤편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은 게 가장 큰 수확이었다"며 입을 모았다.

한편, 무주군 반딧불 농업대학은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전문 경영 능력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올해는 사과, 포도, 농산물 마케팅과에서 139명의 졸업 및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2009년 개교 이래 총 1,460명이 배출돼 무주농업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주민생활통합지원 시스템 용역 완료보고회

진안군은 22일 진안관 디지털 뉴딜 사업인 주민생활통합지원 시스템 용역 완료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10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방향 및 기술개발, 사업비 산출 등이 추진됐으며,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기술을 적용한 시연이 함께 진행됐다.

진안군(민원봉사과)이 기획하고, (주)인조이웍스가 기술개발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관내 316개 마을과 행정기관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마을별로 설치된 전용기기를 통해 ▲음성과 문자로 각종 생활정보 ▲원격으로 민원서류 발급과 민원신청 업무를 처리 ▲화상을 통한 공무원-민원인 직접 상담 ▲각종 정책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고·접수가 가능해진다.

보고회에서는 주민생활통합시스템의 특혜권 소유 및 사용에 대한 계약 체결도 이루어졌다.

군은 내년 6월 시범운영 마을 1개소를 선정, 시스템을 설치·운영 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보완한 후 2022년에는 관내 모든 마을에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에 이웃 위한 나눔의 손길 이어져

무주군에 연말을 맞아 나눔과 기부문화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군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22일 오전 무주군청을 찾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담해 달라며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같은 날 무주새마을금고는 적산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관내 이웃들에게 사용해 달라면서 현금 101만원과 쌀 62kg를 전달했다.

적산면 행정복지센터는 현금 500만원이 기탁되고 쌀은 저소득 세대 6가구에 배부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